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뉴욕 제조 활동 정체... 가격도 하락
- WSJ: 전문가들, “침체 가능성 줄어든다” 전망
- WSJ: 2년간 뒤쳐졌던 임금 인상, 결국 인플레이보다 앞서

[미국 금융]

- WSJ: 시장, 연준이 연착륙 할수 있다고 거의 확신... 주식 상승

[뉴욕]

- Bloomberg: 뉴욕 대기 질 다시 떨어져... 캐나다 산불 유입
- CNBC: 뉴욕시 옐로 택시 Uber와 Lyft에 힘겹게 맞서다

[미국 생활]

- WSJ: “정신건강 신경쓰는 미국인 더 늘었다”

[중국 경제]

- WSJ: 중국 경제, 회복세 주춤하면서 거의 정체
- Bloomberg: 옐런 장관, “중국 침체 파급효과 있지만 미국은 침체 없어”
- WSJ: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중국 경제의 희망’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Tesla “사이버트럭 생산 시작”
- Bloomberg: Expedia, Vrbo 포함한 리워드 프로그램 출시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New York Manufacturing Barely Grows, While Price Gauges Retreat

뉴욕 제조 활동 그대로... 가격도 하락

- 주문이 늘고, 인플레이 압력이 줄면서 7월 뉴욕주 제조 활동 지표가 거의 확장하지 않았다.
- 오늘 월요일 뉴욕 연방은행 일반 비즈니스 여건 지수는 5.5포인트 줄어든 1.1을 기록했다. 제로를 상회하면 성장세를 보인다.
- 또한 인플레이 압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욕주 제조업체가 지불하고 받는 가격 지표는 2020년 중반 이후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받는 가격 전망은 회복세를 보였다.

Bloomberg 기사

WSJ: Economists Are Cutting Back Their Recession Expectations 전문가들, “침체 가능성 줄어든다” 전망

- 이코노미스트들은 경기 침체 리스트를 낮추고 있다.
- 월스트리트 저널 설문 답변 기업과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향후 12개월내에 침체 가능성을 이전 두차례 설문조사의 61%에서 54%로 하향 전망했다.
- 인플레이 둔화, 여전히 견고한 노동시장, 경제 회복력에 따른 것이라는 것.
- 물론 침체 가능성은 과거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코로나 사태 직후 경제 회복중이던 2020년 8월 이후 올해 6월과 비교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다.
- 이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동안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WSJ 기사

WSJ: Pay Raises Are Finally Beating Inflation After Two Years of Falling Behind 2년간 뒤쳐졌던 임금 인상, 결국 인플레이보다 앞서

- 한마디로 소비자 물가가 3% 상승하는 동안 임금은 4% 이상 상승했다.
- 이같은 임금 상승세는 연준의 물가 하락 노력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재정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6월의 인플레이 조정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도 같은 달과 대비해 1.2% 상승했다.
- 이는 지난 2년간 물가 상승으로 역사적으로 오른 근로자 임금 효과가 사라진 이후 최근 2개월 연속 상승한 수치다.
-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미국인들 지출이 늘면서 침체 가능성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WSJ 기사

[미국 금융]

WSJ: Markets Appear Convinced the Fed Can Pull Off a Soft Landing 시장, 연준이 연착륙 할수 있다고 거의 확신... 주식 상승

- 월스트리트는 인플레이가 둔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더욱 확실히 하고 있다.
- 즉 투자자들은 희망하기를 연준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가격 압력을 관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지난주 각종 경제 지표가 이같은 좋은 신호를 보이고 있다. 중고차부터 식료품까지 모든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소비자물가지수는 6월에 2년여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도매 물가 상승률은 더욱 낮아졌다. 창고, 공장, 농장, 에너지 생산업체가 6월에 판매한 가격 측정 지수는 2020년 8월 이후 가장 느리게 올랐다.

CNBC 기사

[뉴욕]

Bloomberg: New York Air Quality Drops as Canadian Wildfire Smoke Returns

뉴욕 대기 질 다시 떨어져... 캐나다 산불 다시 유입

- 뉴욕과 중서부, 북동부 일부 지역 대기 질이 떨어지고 있다. 캐나다 산불 연기가 다시 미국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 연방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뉴욕시의 경우 월요일 아침 브루클린과 퀸즈 일부 지역 대기 질은 보통 수준이었고, 맨해튼 대기 상태는 더 좋았다.
- 하지만 미국 기상 예측 센터에 따르면 오늘 오후 늦게 대기 질이 건강에 해로울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
- Rochester, Buffalo, Syracuse 교외 지역을 포함한 뉴욕 서부 지역과 시카고 일부 지역의 현재 대기 질은 나쁜 상태이다.

Bloomberg 기사

CNBC: New York City taxis fight for survival against Uber and Lyft

뉴욕시 옐로 택시 Uber와 Lyft에 힘겹게 맞서다

- 옐로 택시는 수십 년 동안 뉴욕시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뉴욕시 택시 기사는 전체 운전자 중 약 10%에 불과하며, 대부분 Uber와 Lyft가 차지하고 있다.
-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 따르면 택시 기사는 하루 평균 9.5시간, 주 6일 근무한다. 또한 택시를 운전하려면 메달리온(medallion)을 소유해야 하는데, 이는 2010년대 초에 100만 불이 넘었다.
- 이후 Uber와 Lyft 때문에 메달리온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를 소유했던 운전자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게다가 팬데믹으로 인해 택시 호출이 거의 사라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 되었다.
- 택시 기사들은 현재 메달리온과 팬데믹 위기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끊임 없이 노력해야 할 상황이다.

CNBC 기사

[미국 생활]**WSJ: More Americans Seek Mental-Health Care, UnitedHealth Says**
“정신 건강 신경쓰는 미국인 더 늘었다”

- 모든 연령의 미국인들은 불안, 스트레스, 약물 사용 문제 때문에 더 많은 정신 건강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최대 의료보험사UnitedHealth Group은 심리적인 방문 및 기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비율이 작년 이후 두 자릿수 증가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인 변화라는 것이다.
- 이 회사는 사람들이 행동 건강 문제에 대한 도움을 구하는 것을 점점 더 편안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신 건강 관리 제공이 계속 부족하여 접근성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WSJ 기사

[중국 경제]**WSJ: China's Economy Barely Grows as Recovery Fades**
중국 경제, 회복세 주춤하면서 거의 정체

- 중국 경제가 2분기에 거의 성장하지 못했다. 또한 청년 실업률은 6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경제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 2023년 성장률 둔화로 중국 소비자들은 지출을 자제하고 수출이 부진해지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 경색이 장기화되고 지방 정부 재정이 흔들리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 중국 경제는 2분기에 0.8% 성장으로 그쳤다. 이는 1분기 성장률 2.2%의 절반도 못 되는 수치이다. 게다가 16~24세 중국인 중 5분의 1 이상이 실직 상태이다.
- 이는 소매 판매 부진, 민간 부문 투자 침체, 수출 감소를 보여준다.

WSJ 기사

Bloomberg: Yellen Says China Slowdown Risks Spillovers But No US Recession
옐런 장관, “중국 침체 파급효과 있지만 미국은 침체 없어”

- 옐런 미 재무장관은 중국의 경제 침체 리스크가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야기 시키지만, 미국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많은 국가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경제 성장을 위해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 경제 둔화는 미국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는 특히 미국에 대해 “성장은 둔화하였지만 노동 시장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앨런 의장은 말했다. 그녀는 경제가 노동 시장의 큰 약화 없이도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긍정적인 길’을 걷고 있다고 덧붙였다.

Bloomberg 기사

WSJ: Can EVs and Solar Panels Save China's Economy?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중국 경제의 희망”

- 중국 경제는 현재 침체기를 겪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을 비롯한 일부 산업에서는 활기를 띠고 있다.
- 중국의 2분기 경제 생산량이 전년 대비 6.3% 증가했지만 중국의 올해 성장률 목표 5% 달성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2분기 성장률이 0.8% 밖에 안 되고, 민간 투자와 소비의 지속적 약세 때문이다.
- 하지만 전기차와 청정 전력 및 배터리 등의 산업에서는 강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상반기 전기 기계 및 장비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39%, 자동차는 20% 증가했다. 또한 상반기 민간 부문 전체 제조업 투자는 8.6% 증가했다.
- 데이터 제공업체 CEIC에 따르면 컴퓨터 및 전자 산업이 자동차 산업보다 약 2배 더 많은 인력을 고용했다. 인터넷 플랫폼 경제는 중국 도시 일자리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5월 컴퓨터와 수출액은 240억 불 이상이다.
- 6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은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리튬 이온 배터리 수출은 5월에 42% 증가했다. 6월 전체 수출은 12% 감소했는데, 이는 컴퓨터와 휴대폰 출하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Tesla Begins Cybertruck Production After Yearslong Wait Tesla “사이버트럭 생산 시작”

- 테슬라가 약 4년 만에 미래형 전기 픽업 트럭을 출시했다.
- 테슬라가 4년 전 진출 계획을 밝힌 이후 많은 경쟁업체가 전기 픽업 트럭을 시장에 출시했다.
- Ford의 F-150 라이트닝 픽업트럭은 작년 초 미시간 주에서 조립 라인을 가동하기 시작했고, Rivian은 최근 몇 달 동안 R1T 픽업트럭의 고객을 늘리

고 있다.

- 테슬라의 CEO Musk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사이버트럭 배송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Bloomberg: Expedia Launches Rewards Program Across Brands, Including Vrbo **Expedia, Vrbo 포함한 리워드 프로그램 출시**

- Google 및 Booking Holdings와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Expedia는 글로벌 여행 붐을 활용하여 로열티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 One Key를 통해 여행자는 휴가용 렌탈 플랫폼인 Vrbo에서 포인트를 쌓아 항공편을 예약하거나 객실을 예약할 수 있게 된다. 즉 플랫폼 전반에서 리워드를 사용하고 적립할 수 있는 것이다.
- 기존 Expedia에서 받은 리워드가 있는 미국 거주자는 렌터카, 크루즈, 액티비티 등 Expedia 마켓플레이스 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One Key 캐시로 자동 전환된다.
- Expedia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시작될 것이며, 2024년부터 전 세계로 확대될 예정이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연착륙 가능하다' 기대 부푼 美금융시장...경기침체 예상 '뚝'

스탠다드은행 "달러 수년간 하락" vs 골드만 "美경제 회복력 있어"

미국의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금융시장에서 광범위하게 부풀고 있다.

최근 물가상승률의 큰 폭 둔화를 보여주는 지표가 잇따르면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지 않고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더는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는 분위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지난주 발표된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가 2~3년 만에 최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데 힘입어 어느 때보다 인플레이션 진정에 대한 확신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